



# ‘동시다발 확산’ 제주 코로나 최대 위기

### 고교·성당·교회 등 이어지며 17일 기준 160명 확진 최근 역학조사 한계 부딪히며 방역당국 초비상 상태 도 “집단감염 위험성 높아져 전 도민 진단검사 검토”

12월 들어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지역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초비상 상황이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수는 누적 총 160명이라고 밝혔다.

17일 하루 6명의 확진자(제주 155~160번째)가 추가로 발생했다.

155번 확진자는 131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부민장례식장 방문자이다. 156번 확진자와 157번 확진자는 가족으로 수도권 거주자다. 158번 확진자는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도방역당국이 감염경로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9번 확진자는 제주도 소재 제일고등학교 학생으로 파악됐다. 대기고 학생의 확진소식을 듣고 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는 감염병관리팀, 감염병

관리지원단, 도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159번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등 밀접 접촉자 총 4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60번 확진자는 150번(김녕성당 관련 확진자) 확진자의 가족이다.

특히 최근 특정지역 감염 확진자

는 김녕성당 관련 19명, 대기고 관련 9명, 성안-한백선 교회관련 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달 들어 일일 확진자 추이는 ▷1일 4명 ▷3일 1명 ▷4일 1명 ▷6일 2명 ▷8일 2명 ▷9일 11명 ▷10일 5명 ▷12일 3명 ▷13일 8명 ▷14일 9명 ▷15일 15명 ▷16일 12명 ▷17일 오후 5시 기준 6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검사에 필요한 의료 물량과 인력 부족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실시여부는 안갯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지역내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도민 전수 또는 그에 준하는 규모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전도민 전수검사에 따른 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가 되면 (전 도민 대상 검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17일 제주시 김녕리 제주동부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에 자가격리자도 폭증세

### 평소 200~300명이던 격리자 최근 1200명 넘어 ‘위기 상황’

제주지역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12월에 쏟아지면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들을 1대1로 전담관리하는데 투입되는 공무원 숫자도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자가격리자는 1208명으로 내국인이 936명, 해외입국자가 272명이다. 이달 5일만 해도 607명이었던 자가격리자가 열흘 남짓만에 갑절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의 경우 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많아도 3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이 16일 기준 820명으로 늘었다. 이는 이달 들어 도내 확진자가 75명으로, 누적확진자(156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성안교회, 대기고, 김녕성당발 확진자 증가로 밀접접촉자도 덩달아 늘어나며 전담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제주시는 6~8급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를 전담중인데, 최근들어 확진자 급증으로 현재 820명이 1대1 보

나리터에 나서면서 예비자는 191명으로 줄었다.

전담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내보호 애플리케이션과 전화로 격리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1대1로 관리하면서 하루 2회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 유무,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또 외출이 금지됨에 따라 한끼에 8000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품품을 격리장소로 배달 지원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다.

특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중 양성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잖아 전담공무원들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데 그동안 도내에서 외출했다 적발됐던 경우가 16명이나 발생했다. 양 행정시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집안에서만 머물고 외출제한 안된다”며 “앞으로 자가격리자가 더 늘어나 이들을 전담할 가용공무원이 부족하면 현재 1대1 전담에서 한 공무원이 2~3명을 전담해야 할수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수도권 방문 이력자 코로나 검사 지원 도 “확진자 70%가 관광객·타시도 방문 도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70% 정도가 수도권 및 타지역 관련 이력 이 있는 도민이거나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도권 방문 이력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집중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방문 이력을 지닌 도민과 체류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17일 기준 제주지역은 총 1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약 70% 정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관련 이력 이 있는 도민이거나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림읍, 게스트하우스, 영어교육도시, 교회탈 등 그동안 집단감염 사례

들을 고려할 때 수도권 방문 이력을 지닌 확진자가 도내 지역사회 감염의 최초 전파자가 되어 또 다른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는 현재 특별입도절차 시즌 4에 따라 제주 입도객 중 37.5°C 이상 발열자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타 시도 방문 이력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도 한층 더 강화해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2주 이내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제주 체류자 포함)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제주 체류자 포함)들은 제주도내 13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태윤기자

##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만장굴 임시폐쇄

### 거문오름 등 해설도 중단

구좌읍 소재 용암동굴인 만장굴이 오는 23일까지 관람을 중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152번 확진자 A씨가 세계유산본부 소속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로 파악됨에 따라 만장굴 소속 해설사 등 직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시설물 방역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김녕성당 관련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제주 121·127번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장굴 동굴 안에는 들어가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

화재청과 도 방역당국 역학조사관의 자문을 받아 일주일 정도 폐쇄하고 자연 공기 순환을 통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7일 후에는 난간·안내판 등 인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도 방역당국은 향후 직원 및 해설사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폐쇄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18일부터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의 해설을 중단하고 자율탐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거문오름 탐방인원도 현행 50명에서 절반 정도인 25명으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법인 회계직원 탈미

### 5700만원 불법도박 사용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빼돌려 불법도박을 한 법인 회계 직원이 자치경찰단에 탈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5700여만원을 횡령한 A법인 회계 담당 직원 B씨를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관련 법인의 회계 담당 및 관

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취업 지원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5700여만원을 36회에 걸쳐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해 불법 도박(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USB에 몰래 복사해 소지한 후 정상적인 예산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체를 조작해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립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줌.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희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생산성 증대  
뿌리 발달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광합성 촉진  
종미개선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희토류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 · 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 · 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